

지역 소식통

부안, 2분기 통합방위협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4일 오후 2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인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부안군의회, 군, 경찰, 소방, 해경, 유관기관 등의 기관단체장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2024년 화랑훈련 보고 등 2분기 주요 부안군 통합방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기관별 통합방위 업무 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7월에 있을 화랑훈련 등 통합방위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뜻을 같이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큰 호응

정읍시가 고등학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서비스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들 중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대다수가 학업과 학사일정으로 평일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대다수가 학업과 학사일정으로 평일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발급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들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했다. 서비스팀은 지난 7일 정읍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정읍고등학교, 정읍여자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해 21일 행정전산처리를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정 긍정평가 '만족'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향상·생활여건 개선 등 생활형 정책... 체감도 가장 높아

고창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민선8기 2년차 고창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주민인식도 등 자체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군민들은 '군정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74%가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외 정세변화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의 긍정평가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과홍보(34.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심덕섭 고창군수의 현장행정과 각 읍·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설명회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참신하고 과감한 시도(29.4%)', '열심히 일하는 태도(21.2%)'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군 단위에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대성공으로 이끌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삼성전자 유치', 대한민국 최초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등을 성사시켰다.

군민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으로는 생활형 정책인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생활여건 개선'이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

군은 전국 최고의 김치 원료 주산지인 고창의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군정에 가장 개선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여론수렴 및 소통과 홍보(5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여론조사를 통해 민선 8기 고창군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농·어업인, 다문화, 여성, 노인, 아이 등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창군이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용역의뢰하여 지난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 만18세 이상 고창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현장점검

안전사고 예방 총력

이학수 시장은 지난 24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건축전문가, 관계 공무원, 공사 감리단 등 10명이 참여했다.

샘고을 게이트볼장은 연지동 191-1번지에 16억의 예산을 투입해 총 면적 992㎡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경기장 2면과 사무실, 화장실이 포함된 실내 경기장 형식이며, 오는 10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 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을 토대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다리·지붕·비계 분야와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물 고임·감전 등



이학수 시장은 지난 24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전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6·25참전유공자회 부안지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안보 결의대회' 개최

부안군과 6.25참전유공자회 부안군지회(회장 김현술)는 25일 부안관광호텔에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6.25 참전유공자들의 위국헌신을 군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

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 보훈단체장과 기관장,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무공훈장 수여, 기념사 및 격려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6.25전쟁 당시 공로가 인정되어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지만, 1951년 9월 강원 인제 지구 전투에서 전사로 수여받지 못한 허박동일 중사의 화랑무공훈장이 73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해 열린 '2023 고창갯벌축제'.

(사진=고창군청 제공)

2024 고창갯벌축제 개최

오는 28~30일 심원면 만들갯벌서 체험 및 문화행사 다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고창군은 오는 28일~30일 심원면 만들갯벌에서 '2024 고창갯벌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체험 및 문화행사가 펼쳐진다고 25일 밝혔다.

200여대 이상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고창갯벌길 건강걷기대회', '갯벌 인생네컷 포토부스',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바지락과 동죽을 캐는 '갯벌체험 활동', 고창의 대표 수산물인 풍천

장어를 맨손으로 잡는 '미끌미끌 풍천 장어 잡기' 등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외에도 새우튀김, 동죽해물과전 등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산물 특화 먹거리 코너와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풍천장어를 시식하고 시중 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충 고창갯벌축제추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만들갯벌축제장에서 청정해안과 친환경 먹거리를 마음껏 느끼며 즐거운 체험, 신나는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농기센터, 농작물·시설물 사전 관리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장마 시작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오랜 가뭄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생육 불량, 병해충 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고추는 6월 초순부터 역병, 탄저병 발생확률이 높아지며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결정적인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마 전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랑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마 피해 대책으로는 배수 즉시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요소 0.2% 액이나 제4중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된다.

무, 배추는 호우에 따른 무름병과 밀

동씩염병, 과습·침수에 따른 뿌리 활력저하로 식물체가 고사하므로 사전에 고랑과 배수로 사전 정비로 장마기 습해 방지, 예방 위주 병해충 방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장마 피해 대책으로는 고랑·배수로 정비 작업 실시, 강우 후 일에 물은 흙 오물 등을 분무기나 호스 등을 이용 씻어주고 병든 잎이나 열매는 제거 후 살균제 살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업시설물은 수방재해 준비를 미리 확보·비축하고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고정해 밀착해 피해를 예방하고, 비닐 교체 예정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를 주시해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